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선출 '공정·투명하게'

지역 문화단체들, 행정·소통 능력 갖춘 인사 선임돼야

10일까지 접수, 5명 규모 심사위 구성... 4월 중 마무리

현재 공석인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시작되면서 후임 사무처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3~4명의 문화계 인사와 자선·타천으로 물망에 오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단 안팎에서는 전임 사무처장이 각종 인사 개입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되고 조직내 문제를 건의한 내부문서가 유출되는 등 조직내 분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문화단체들도 연일 성명을 통해 소신있는 전문가, 행정능력이 뛰어난 문화예술 종사자, 조직 내부 분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역 문화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굳이 지역 출신 인사가 아니더라도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대표이

사와 함께 출연기관인 광주시로부터 사업과 조직 운용, 재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어 "일부 인사들이 후임 사무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형식적인 공채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한 공개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측도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고 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 사무처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호재 재단 정책기획실장은 "후임 사무처장 공개모집은 최대한 자격을 열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자칫 제한을 두게 되면 특정 인사를 겨냥했다는 등 말이 나올 수 있어 능력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넓혔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항간에 사무처장 자리를 노리고 접근하고 있는 인사가 있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재단은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일부에서 내정설 등이 흘러나오는 모양인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단은 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8~1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재단 사업과 관련 전문 지식,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자이다.

또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문화예술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회·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 등과 소통 및 유기적 대외관계를 형성·관리할 수 있는 자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다.

재단은 의회 등 각계에서 적격 인사 12명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무작위로 5명을 뽑아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모부터 서류전형, 면접까지 3주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4월 중 선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후임 사무처장 공모와 관련, 문화계는 문화행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수기자 jeans@



공옥진 '1인 창무극' 부활한다

전남문화재단-영광문화원, 12월까지 양성교육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공옥진 여사(1931~2012·사진)는 생전에 '1인 창무극'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한 점을 늘 아쉬워했다. 문화계 인사들 역시 귀중한 문화자산이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등을 둘 수 있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2010년에야 이뤄지면서 공식적인 후계자와 전수자를 육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여사의 '1인 창무극'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남문화재단과 영광문화원, 공옥진예술연구소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옥진의 1인 창무극 심화 문화예술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국악전공자, 공옥진 여사 사사 경험자, 1인 창무극 기초 기능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공여사의 삶을 사사한 무용가 김하월씨가 무용강사로 나서고, 전북도립국악단 창극단장을 역임한 김영자씨가 연희극 강사를 맡았다. 또 공옥진 여사의 부친인 공태일 명창을 사사하고, 지난해 동리대상을 수상한 김일구 명창이 소리 교육을 담당한다.

이밖에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장인 한희천씨와 민속학자 나경수 전남대 교수가 공옥진 여사의 예술세계 및 관련 이론교육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 수료자에게는 전남문화재단 명의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도내 학교 국악분야 방과 후 교사 등 지역문화문화예술교육사업 교육강사 활동을 지원한다. 마감은 오는 5일이다.

고(故) 공옥진 여사는 공사춤, 문동이춤, 장남춤 등 지체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잘 살린 병신춤으로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지난 2010년 전남 무형문화재 '1인 창무극 심화'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문의 061-280-58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얼·아리 '우렁 각시?!' 광주연극제 최우수상·연출상

"다양한 색깔 사랑이야기 참신"... 6월 전국연극제 참가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제27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얼·아리의 '우렁 각시?!'가 최우수상과 연출상(양태훈)을 받았다.

지난 28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연극제에는 극단 얼·아리 등 모두 5팀이 참여, 경연을 펼쳤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희곡을 쓰고 직접 연출한 '우렁각시?!'는 '사랑'을 소재로 작품을 의뢰받은 주인공을 통해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우렁각시?!'에 대해 "작가의 분신을 등장시켜 사랑의 다양한 색깔을 조명해 보는 작품의 모티프가 참신하고 무대는 다소 심플하지만 소박하면서도 전달하려는 메시

지가 정확했다"고 평했다. 반면 "마지막 결말이 너무 함축적으로 다뤄져 난해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양태훈 대표는 "현재의 주인공과 20대, 30대를 상징하는 그늘, 그녀석을 등장시켜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며 "사랑에서 파생되는 자아 정체성 문제까지 다루려는 시도를 하다가 보니 극 마지막 부분에 다소 비약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렁각시?!'는 오는 6월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리는 제31회 전국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양 대표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기전 광주시연극협회의 도움으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1주일 정도 공연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심사



극단 얼·아리의 '우렁 각시?!'

위원들과 주변 연극인들의 조언을 토대로 좀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8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받게되는 우수상은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꽃같은 시절'과 극단 행복한 사람들의 '풍금'이 수상

했다. 푸른연극마을의 '꽃같은 시절'은 여자 연기상(이담금)과 무대미술상(정봉환), 신인연기상(황민형)을, 행복한 사람들의 '풍금'은 남자연기상(이현기)과 희곡상(김창일)도 함께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미술관 실무연수자

5일까지 2명 추가모집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5일까지 미술관 실무연수자 2명을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준학에서 자격시험 합격자 ▲국내·외 대학 미술관 연학과 졸업자 및 대학원 수료자 이상 등이다.

연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전시기획, 교육, 작품수장, 전시안내 등의 업무를 배우게 된다.

연수를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을 인정해 준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4월8일)와 2차 시험(4월10일)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일이다. 문의 062-613-71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www.kjhr.com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

신양 웨딩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객실이용시 4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 시 10% DC

가족모임(돌잔치, 고현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 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